# 연구소 소식

### 2018년도 제1차 육아정책 연구 생태계 포럼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9월 18일(화) 엘 타워에서 '2018년 제1차 육아정책 연구 생태계 포럼'을 개최하였다. '육 아정책 연구 생태계 포럼'은 미래 사 회를 선도하는 육아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함으로, 다학제 간 융복합 연구 기반을 확대하고, 시 너지 창출을 위한 공조체제 구축, 선



제적 이슈 발굴 등을 목적으로 한다. 육아정책 연구 생태계 포럼의 근간이 되는 '육아정책 연구 생태계 네트워크'는 산·학·연 등 유관기관 총 33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포럼에는 한국아동학회 등 학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연구기관, 교육부 등 정부부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시민사회단체, SBS 등 언론,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준공 공기관 대표 14인이 참석하였다. '2018년 제1차 육아정책 연구 생태계 포럼'에서는 각기관의 현황 소개와 함께 육아정책연구소 연구 및 사업과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육아정책연구소-인구보건복지협회 업무협약 체결

육아정책연구소는 9월 19일(수) 대회의실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백선희 소장과 신언항 회장 참석하에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는 조경애 사무총장, 서정애 인구전략실장, 송경섭 출산건강실장, 김인호 홍보기획단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연구소에서는 김은설 기획조정본부장, 문무경



국제연구협력실장, 김은영 경영지원실장, 이윤진 성과공유팀장이 참석했다. 본 협약은

육아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와 인구 사업을 시민과 소통하며 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장 실무기관인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상호 협력하여 장기화된 초저출산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연구소와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이번 협약에 따라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육아 환경조성을 위한 협력 사업들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의 일환으로 출산, 육아 관련 사업에 협력하고, 이를 정책 발굴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포럼, 세미나, 캠페인 등을 진행함에 있어 상호 지원하고 참여할 예정이다.

# 육아정책연구소-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업무협약 체결

육아정책연구소는 9월 20일(목)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백선희 소장과 이제훈 회장 참석 하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의 김은정소장, 이정영 사업개발팀장, 이수진연구조사팀장이,연구소에서는 김은설기획조정본부장,문무경국제연구



협력실장, 이윤진 성과공유팀장이 참석했다. 본 협약은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 설립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상호 협력하여 아동권리 옹호와 양 기관 의 상호발전을 위해 체결하였다. 연구소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이번 협약에 따라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연구개발과 아동권리 이행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상호협력하여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제6차 KAL 찾아가는 육아현장 간담회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10월 1일(월) 서울 NPO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저소득 가구의 부모들과 "제6차 KAL(KICCE Active Listening: 육아정책연구소의 적극적 경청) 찾아가는 육아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본 회의에서는 저소득 가구에서 발생하는 양육의 애로점 및 양육비용 지원정책에 대한 논



의를 진행하였는데, 부모들은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접근성 문제, 시간연장 어린이집 확보 문제, 부모를 위한 정서적 지원서비스 및 놀이·돌봄 공간의 부족 등을 애로점으로 꼽았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제공하기 보다는 만족도가 높고 꼭 필요한 정책들을 선별·확대 제공하고, 지역마다 아이 돌봄 및 육아 공동체 공간을 마련하여 양육비용 절감 및 부모 간 정보 교류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가장 좋은 정책은 부모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이는 부모의 장시간 근로 및 경력단절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 제3차 초저출산 시대,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포럼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10월 2일(화) '제3차 초저출산 시대, 포용적 복지국 가를 위한 육아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지난 1~2차 포럼에 이어 3차 포럼에서는 2개 분야 주제에 대한(모자보건, 공간·지역) 외부전문가의 발표가 있었다. '모자보건 관점에서의 육아정책'을 주제로 손인숙 교수(건국대학교 병원)가 발표하였고, '지역사회



차원의 보육지원정책 개선방향'을 주제로 천현숙 선임연구위원(국토연구원)이 발표하였다. 발표에 이어서 원내외 위원들의 질의·응답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 2018년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10월 12일(금),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사회정책 분야 의 6개 학회와 10개 연구 단체와 공 동으로 '2018 사회정책연합학술대 회: 한국 복지국가의 새로운 DNA를 찾아서'를 주최하였다. 연구소 세션 은 '한국사회의 육아 현주소 진단:



육아권 및 육아환경 탐색'주제로 개최되어, '육아권의 필요성과 정립 방안'에 대한 김 정현 교수(전북대 일반사회교육과)의 발표가 이루어졌고, 이어 정필운 교수(한국교원대

일반사회교육과)와 본 연구소의 김아름 부연구위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두 번째 발표는 '육아하기 좋은 지역사회를 위한 전달체계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본 연구소의 강은 진 육아지원연구팀장이 발표하였고, 발표에 이어 김성천 교수(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최일선 교수(경인교대 유아교육과)의 토론이 이어졌다.

# 2018년 정책토론회 개최

육아정책연구소와 남인순 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원은 10월 17일(수) 국 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영유아 의 건강한 출발을 위한 지역사회 양 육 및 보건의료 기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육아정책 연구소 기본과제인 '영유아 양육 및 보건의료 통합지원 체계 구축'의 연



구 결과를 공유하여 '아동 최우선의 이익'이 고려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첫 번째 주제로 강은진 연구위원이 유아 부모들의 임신, 출산, 양육과정에서 시기별 어려움과 통합적 지원 방법에 관하여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이어 권용진서울대학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일본의 육아포괄지원센터 사례를,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건인력 지원 방안에 대해 다루었다. 이에대해 정익중 교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를 좌장으로 하여 김지애 학부모, 박현임 인구보건복지협회 건강증진과장, 김승옥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윤재희 월촌초등학교 보건교사, 손문금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출산정책과장이 토론하였다.

### 육아정책연구소-SBS 희망내일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육아정책연구소는 10월 22일(월) SBS 본사에서 SBS 희망내일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백선희 소장과 박정훈 SBS 사장(희망내일위원회 위원장) 참석 하에 SBS에서는 전수진 편성실장, 남상문 공익방송분과장, 성영준 SBS 사회공헌 부국장이 참석하였고 이원구 사



무국장이 사회를 맡았다. 연구소에서는 김은설 기획조정본부장, 유해미 육아정책연구실장, 김은영 경영지원실장, 이윤진 성과공유팀장 그리고 육아문화를 연구하고 있는 권미경 부연구위원, '육아권'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김아름 부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육아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와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꾸준히 방송해온 SBS 희망내일위원회가 상호 협력하여 "아이 낳고 싶은 육아문화조성"을 위해 체결하였다. 연구소와 SBS 희망내일위원회는 이번협약에 따라 향후 "희망TV SBS" 등 사회공헌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상호협력, 연구소 연구과제에 대한 상호협력,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제고 및 홍보협력, 저출산대책 관련 발표회, 포럼 개최 등 상호협력 및 콘텐츠 교류 사업들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사립유치원 운영 공공성 제고를 위한 긴급간담회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10월 24일(수) 대회의실에서 '사립유치원 운영 공공 성 제고를 위한 긴급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백선희 소장 외 원내 연구직 원들이 간담회에 참석하였으며, 외부 토론자로 김남희 변호사(참여연대 사 회복지위원회), 양선아 기자(한겨레),



오경숙 원장(국공립 면일어린이집) 등이 참석하였다. 2018년 육아정책연구소 수시과제인 '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회계관리 시스템 인증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김동훈 부연구위원이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 방안 논의'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발표 이후 원내외 참석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 제4차 초저출산 시대,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포럼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10월 26일(금) '제4차 초저출산 시대, 포용적 복지국 가를 위한 육아정책포럼'을 개최하였 다. 4차 포럼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 이정원 연구위원의 '육아정책의 전개 과정과 국가계획'에 대한 발표와 김 은실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의 '여성학/문화적 관점에서 보는 한국의 저출산과 돌봄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발표에 이어서 원내외 위원들의 질의·응답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 제7차 KAL 찾아가는 육아현장 간담회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11월 2일(금)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맞벌이 가구의 부모들과 제7차 KAL(KICCE Active Listening:육아정책연구소의 적극적 경청) 찾아가는 육아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영유아가 있는 맞벌이가구 부모들이 겪는 양육의 애로점과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맞벌이 가구의 부모와 사용자의 경우, 모두 대체인력 구인의 어려움, 인건비 압박, 주위 동료의 업무 가중, 복직 후 업무 복귀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사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부모들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제공해 주기를 바라면서,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의 배정 시 우선 자격 선정, 아빠 휴가의 경우 출산 후 일정기간 내 탄력적 운영과 같은 현실적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맞벌이 부모가 아이양육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탄력적 근무시간운영과 지역의 양육도우미 및 어린이집의 적정 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제2차 KICCE 동아시아 정책세미나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11월 6일(화) 오후 2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동아시아(한국·중국·일본) 저출산 쟁점과 전략 분석'을 주제로 제2차 KICCE 동아시아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백선희 소장은 "중국과 일본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심층연구를 통해 전략적 동반 관계를 지



속할 필요가 있으며 저출산 문제와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 동반자로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주제발표는 김병철 중국인민대학교 사회보장학과 교수가 '중국의 저출산 원

인과 대응전략'을, 이연화 동경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가 '저출산 대책 30년: 일본의 경험과 현위치'를, 도남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대응전략특징'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후 김태헌 아태인구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은기수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최은영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김영근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교수, 신은영 한양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교수가 각국의 사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11월 21일(수) 세미나실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 사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책토론회는 육아정책 연구소와 국가교육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육아정책연구소 주관, 교육 부와 복지부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연구소 2018년도 기본과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격차 완화를 위한 로드맵 연구(I): 교사를 중심으로'의 연구결과와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하였다. 주제발표 후 토론에서는 박은혜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가 좌장을 맡았으며, 윤은주 교수(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김인숙 원장(죽림어린이집), 박혜진 교사(새싹유치원), 장현주 학부모, 강민지 연구관(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박창규 팀장(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공공보육팀)이 패널로 참석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다양한의견을 나누었다.

# 육아정책연구소 13주년 창립기념식 및 제9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13주년 창립기 념식과 제9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주제: 한국아동패널, 초등학생이 되 었어요)를 11월 23일(금)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 였다. 오전에는 '대학원생 논문' 시상 식과 주제 강연이 있었다. 첫 번째 주



제 강연은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의 김성식 교수가 '유아에서 초등학생으로: 유아 기 교육경험과 초등학교에서의 적응 및 학습'이라는 주제로 종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두 번째 주제 강연에서는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호흡기알레르기질환과 이점규 과장이 '생활요인 기인 호흡기알레르기질환 대응 연구 추진방향'을 주제로 패널 심충조사의 건강데이터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오후에는 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워크숍 및 4개의 분과별(초등학교 적응&사교육, 아동발달, 아동건강, 부모 양육) 논문발표와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통계워크숍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가 '아동패널자료를 활용한 대상 중심적(person-centered) 분석'을 주제로 아동패널 종단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 육아정책연구소-중국 인민대 사회보장연구센터 업무협약 체결

육아정책연구소는 11월 27일(화) 중국 인민대학교 사회보장연구센터 (Social Security Research Center of China, Renmin University, China)에서 중국 인민대학교 사회보 장연구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 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백선희 소



장과 Zheng Gongcheng(사회보장연구센터장) 이하 사회보장연구센터의 Lu Quan 교수, Li Ying 교수가 참석하였고 김병철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문무경 국제연구협력실장, 김은영 경영지원실장이 참석했다. 양기관은 MOU체결을 계기로 동아시아 지역의 육아정책 및 영유아복지 정책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와 관련 최신 연구결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 토론회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11월 28일(수)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육아정책 의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과제'를 주 제로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 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권미혁 더 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축사와 함께 1부 기조강연, 2부 주제 발표, 3부



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1부 기조강연은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이며,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 포럼 TF 위원장'인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장이 '초저출산 사회의위기와 대응: 새 정부의 저출산 정책과 육아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고, 2부에서는 본 토론회를 주관하는 연구의 책임자인 육아정책연구소 이정원연구위원이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 포럼 운영 현황 소개'를, 이어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 포럼 운영 결과'를 통해 포럼에서 발표되었던 8개 주제를 요약 및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연구진인 김나영 부연구위원이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전문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끝으로 3부에서는 2부의 발표 내용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으며, 가천대 유아교육과 정미라 교수가 좌장을 맡아 본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화여대 여성학과 김은실 교수, 아태인구연구원장 김대한 원장, 인하대 아동심리학과 양성은 교수,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구 대표,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허선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포용적 복지국가의 관점에서육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해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었다.